

<2021년 12월 7일 화요일 새벽, 주 말씀>

* 새벽 설교를 할 때는

항상 <주일말씀 주제>를 먼저 읽고 인식시켜 주고,
그다음에 <잠언>을 전해 줘야 된다.

모두 금주 말씀에서 나온 잠언들이니,
<주제>를 생각하면서 들어야 ‘그에 해당되게’ 깨닫는다.

* 설교자는 <잠언>을 읽어주기만 하지 말고,
잠언을 한 절, 한 절 풀고 해석해 주면서 설교해 주어야 한다.

1. 깨닫고 알면, 바로 정신의 성장, 생각의 성장이 되어 어른의 신앙을 하게 된다.
2. 섭리사에 온 지 오래됐어도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 하나님은 성장기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는 성장된 뜻을 펴지 않으신다.
3. 모두 시대 사명자를 바로 알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완성급 성장을 함으로 하나님과 성령님의 창조 목적의 뜻을 제대로 펴 드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 취급만 하고, 키우기만 하고 끝내신다.
4. 장성한 자들이란, 하나님과 성령님이 주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알고 깨닫고 행하는 자들이다.

5. 어린아이는 모르니, 집에 불도 내고,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스스로 차에 치어 죽기도 한다. 성장해야, 죽음과 슬픈 운명에서 벗어난다. 성장된 자는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
6. 신앙의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자기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니, 성장이 안 된다.
7.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하다가 신앙이 죽는 자들이 많다. 성장되면, 스스로 깨닫고 알고, 이해도 잘하고, 그 사고와 정신과 생각이 어른 같다.
8. 성장하되, 완성급 성장을 해야 된다. 지금 이 시대는 완성급 성장의 시대다. 그러므로 완성된 신앙을 해야, 하나님과 성령님의 상대가 되어, 그 깊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행하며, 천 년 혼인 잔치를 하게 된다.
9. 저마다 완성급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장사지내고, 성장된 마음과 정신과 생각으로 살아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의 신부가 되어 혼인 잔치한다.
10. 하나님이 주를 통해 완성급 말씀을 주신지 40년이 넘었다. 먼저 온 자와 늦게 온 자의 차이가 있지만, 충분히 모두 성장이 완성됐어야 하는 때다.

11. 성장된 단계란, 곡식으로 말하면 알곡이 된 단계와 같다. 곡식이 크고 익어서 알곡이 됐을 때, 성장됐다고 한다.
12. 과일도 곡식도 완성기의 성장을 해야, 주인이 거두어 가서 뜻대로 쓴다. 이와 같이 신앙도 완성급 성장을 해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그를 통해 창조 목적 사랑의 뜻을 제대로 이루며 떠나신다.